순천 문화재 야행 '겨울 여행'

내달 2~4일 문화의 거리·매산뜰 일원…문화재투어·군밤굽기·토크쇼 등 다채

겨울의 초입에서 순천 문화재 야행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순천시가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간 문화의 거리와 매산뜰 일원에서 순천 문화재야행을 개최한다.

이번 문화재 야행은 겨울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산뜰에 뜨거운 숯불과 그릴을 설치하고 맛있는 밤으로 유명한 송광면에서 공수된 알밤을 직접 구워볼 수 있는 군밤굽기 체험이 있다. 군밤굽기 체험은 투어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탬프투어나 해설투어 참여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가을에 계획됐던 프로그램들 또한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사 최태성 강사와 개그우먼 김세아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문화의거리 한옥글방에서 열린다. 재미와 입담으로 유명한 이들의 입을 통해 순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해볼 만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투어도 더욱 알차게 구성됐다. 해설투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열릴 세계문화유산 축전과 연계해 순천의 문화유산들을 재미있게 조명한 전시 프로그램도 행사의 깊이를 더한다.

순천시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간 문화의 거리와 매산뜰 일원에서 순천 문화재야행을 개최한다. 지난 행사 모습. 〈순천시 제공〉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체험 프로그램인 장명석등 만들기, 하바리움 만들기 등의 체험 뿐 아니라 조명을 활용한 아크릴무드등, 우드시어터 만들기 등 더욱 흥미로운 체험들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이 체험 프로그램들은 사전접수 없이 현장 접수제로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구성으로 호평을 받아온 순천 문화재야행이 겨울의 시작과 함께 열리게 된 만큼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에 시민들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순천 문화재야행 누리집(www.sc-heritage.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30일부터 3일간 열린 순천 문화재 야행에는 6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LG화학 여수공장, 희망하우스 21호 준공

묘도동 독거노인 새 보금자리 마련…LG화학, 주거환경개선비 1500만원 기탁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윤명훈)이 저소득 복지위기가구를 위한 '희망하우스 21호'를 묘도동에 준공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판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LG화학 여수공장 윤명훈 주재임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김종진 관장, 묘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성병 위원장, 김종근, 허충래 통장,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묘도동 희망하우스 21호 가구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사는 어르신 가구다.

지붕 누수로 방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거실과 부엌 싱크대 등 곳곳이 노후돼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태로 시급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딱한 사정을 들은 LG화학 여수공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원을 기탁했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과 청원시공에서는 지붕 교체공사, 방 도배, 씽크대와 장판 교체, 거실 창틀 교체, 균열된 외벽 보수 등 전반적인 주택 개보수를 진행했다.

최근 여수시 묘동에서 여수시-LG화학 여수공장이 힘을 모은 희망하우스 21호 준공식이 열렸다. 〈여수시 제공〉

윤명훈 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은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가정에 안전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늘 힘이 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망하우스 21호를 선물한 LG화학 여수공장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살아가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희망하우스를 만들자"고 말했다.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민간 후원처와 연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복지위기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3억 1000여만원의 후원으로 희망하우스 21개소를 탄생시켰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음악극 '바로크 어드벤처-하멜, 그리고 조선' 공연 모습. 〈구례군 제공〉

구례군 "하멜, 그리고 조선 음악극으로 만나요"

30일 구례문예회관 무료 공연

구례군이 오는 30일 오후 7시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극 공연 '바로크 어드벤처 하멜, 그리고 조선'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역사와 맞물려 있는 이야기로 예기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조선에 표류한 하멜, 그의 기록에 바탕을 둔 하멜의 여정을 담은 스토리를 음악으로 풀어낸 서양과 한국 문화예술의 융합적인 음악극이다.

공연팀 '코리안 바로크 소사이어티'는 바로크 및 중세, 르네상스, 고전 등 다양한 시대의 연주법과 역사 및 문화 등을 연구해, 당시 음악을 오늘날 청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창단된 고음악 전문 연주 단체이며, 서양과 조선의 음악, 그리고 연극의 융합을 통하여 장르를 초월하며 객석과 소통하는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소외지역에 수준 높은 우수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민 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2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료 공연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리 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정상급 공연으로 관내 주민들이 대도시와 다름없는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수상을 축하합니다

곡성군 '원스톱 민원창구' 행안부 장관상

곡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민원창구'가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곡성군은 '원스톱민원창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민원실 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아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공공기관 151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장성군을 포함해 16개 기관이 새롭게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았다.

곡성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판을 받았으며 오는 2025년까지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거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원스톱 민원창구를 개설했다.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다문화 가정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결혼 이주 여성을 민원 안내 도우미로 활용했다.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상담실과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전자 민원 편람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1개 읍면 전체에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이 밖에도 마을회관 중심 정보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군내 버스 도착시간 실시간 안내 등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군민을 위한 민원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보성군, 축산시책 평가 3년 연속 수상

보성군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축산행정 우수성을 입증했다.

보성군은 ▲축산정책분야-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농가 인증(100%), 축산 ICT 사업실적(90%) ▲동물복지분야-녹색축산농장 지정 목표달성(100%), 유기동물 보호 관리 우수 ▲축산경영분야-조사료 재배 및 사업비(70%) 조기 집행, 축산물 이력제 단속(6회) 등 우수 ▲축산자원분야-깨끗한농장지정 신청 목표 달성(100%), 학생 승마체험 우수 등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보성군은 올해 5개 분야에 사업비 약 135억 원을 투입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료 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 특별사료구매자금(융자) 72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체 사업으로 지역 축산농가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봄 극심한 가뭄으로 조사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조사료 가격 폭등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곤포사일리지 구입비(5만롤)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퇴비 부숙제(16t) 1억원을 지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7억 8000만 원 등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전라남도 역점시책인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지방자치 경쟁력 3년째 '전남 최고'

순천시가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전남 최고 지자체 선정됐다.

순천시는 최근 발표된 '2022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3년 연속 전남 종합경쟁력 최고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 연보와 정부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전국 지자체의 경쟁력을 측정해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한 것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차지하는 지자체의 위상, 인구, 지리적 위치 및 특성 등이 경쟁력의 일부로 반영됐다.

순천시는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인 425.43을 훨씬 상회한 553.07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이 주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이 3년 연속 전남 종합경쟁력 1위에 오른 것은 역동적인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등 시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 결과"라면서 "복합 쇼핑몰 유치를 통한 소비인구 유입,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조성, 미래기술 기반의 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 허브 도약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구례군 사랑의 김장 담그기 구례군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202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구례군 여성 단체 및 자원봉사자, 공무원 455명이 참여해 총 1만1000kg의 김치를 담갔으며, 저소득 가정 550가구와 경로당 300곳에 전달했다. 〈구례군 제공〉

여수시, 영화·드라마 참여 '시민배우' 모집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이하 전남영상위)가 여수시와 전남도 권역에서 촬영되는 영화·드라마에 참여할 시민배우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월 4일까지며,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영상위는 시민배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12월 10일 영화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1일에는 개인 프로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배우 프로필은 전남 로케이션 전문 사이트에 업로드될 예정으로, 여수시와 전남에서 촬영되는 작품에 보조출연이 필요할 경우 제작사에서 이를 활용해 출연자를 섭외하게 된다.

촬영에는 전문 사진작가와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가 참여해 시민배우 신청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